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61장의 해석학적 역할:

공의(*sedeq*)의 의미론적 뉘앙스를 중심으로¹

최윤갑(고신대학교 신학과)

I. 들어가면서

이 논문은 공의(*sedeq*)(이하에서 ‘공의’로 표기함)의 의미론적 뉘앙스를 중심으로 이사야 61장이 이사야서에서 수행하는 해석학적 역할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² 이사야를 심도있게 연구한 학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이사야 61장을 주의 깊게 조망하였다.³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61장

1. 이 논문은 다음의 논문을 수정하였다. 최윤갑,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61장의 해석학적 역할: 공의(*sedeq*)의 의미론적 뉘앙스를 중심으로,” 『영신신학저널』 52 (2020): 203-40. 신원하 교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리며, 은퇴를 축하합니다. 이후 더욱 왕성한 사역을 기원합니다.
2. ‘의미론적 뉘앙스’에 관하여는 아래의 자료들을 참조하라. J. Barr, *The Semantics of Biblical Languag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유선명, 『잠언의 의 개념 연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2), 46-51.
3. 사 61장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였다. 첫째, 일군의 학자들은 사 61:1-3에 등장하는 선포자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61장을 연구하였다. 캐논(W. W. Cannon)은 사 61:1-3이 사 40-55장의 종의 노래 중 하나라고 여기고, 따라서 이 선포자는 사 40-55장에 등장하

이 감당하는 신학적·해석학적 역할은 아직 적절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반면 이사야서에서 공의는 반복해 등장하며 시온 백성들의 윤리 도덕적 원리를 제시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묘사하는 핵심 주제, 즉 라이트모티프(leitmotif)이다. 그러나 정경적·신학적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서에서 공의의 주제가 수행하는 해석학적 역할은 아직 적절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논자는 공의의 의미론적 뉘앙스를 중심으로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61장이 수행하는 신학적·해석학적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상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본고는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논자는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공의의 의미론적 뉘앙스들-의로운 통치, 의로운 삶, 구원, 영광, 그리고 새 창조-을 제시할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서, 논자는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공의와 이사야 1장 21-31절, 11장 1-5절, 45장 1-8절, 그리고 66장 10-21절에 나타난 공의가 형성하는 긴밀한 언어적·주제적 연관성과 호응을 논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결론적으로, 논자는 이사야 61장이 공의의 관점에서 이사야 1장, 11장, 그리고 45장을 회상하여 반영하고, 이사야 66장을 앞서 예견함으로써, 전체 이사야서 메시지에 일관성(coherence)

는 종과 동일인물이라고 여긴다. “Isaiah 61,1-3 an Ebed-Jahweh Poem,” ZAW 47 (1929): 284-88; W. A. M. Beuken, “Servant and Herald of Good Tidings: Isaiah 61 as An Interpretation of Isaiah 40-55,” in *Book Isaiah-Livre Isaie* (ed. J. Vermeylen; Louvain: Leuven University Press, 1989), 411-42; H. G. M. Williamson, *Variations on a Theme: King, Messiah and Servant in the Book of Isaiah* (Carlisle: Paternoster, 2000), 174-88; J. Stromberg, D. G. Firth, H. G. M. Williamson, “An Inner-Isaianic Reading of Isaiah 61:1-3,” in *Interpret. Isaiah Issues Approach* (Downers Grove: IVP, 2009), 261- 72 두 번째, 일부 학자들은 사 61:1-3과 눅 4:16-20의 신학적·해석학적 연관성을 살피기 위해 사 61장을 연구하였다. R. B. Chisholm, “The Christological Fulfillment of Isaiah's Servant Songs,” *Biblical Sacra* 163 (2006): 387-404; J. J. Collins, “A Herald of Good Tidings : Isaiah 61:1-3 and Its Actualization in the Dead Sea Scrolls,” in *Quest Context Mean* (Leiden: Brill, 1997), 225-40. 끝으로, 오더버그(H. Odeberg)는 사 61장이 이사야서 다른 장들과 가진 언어적·주제적 연관성을 연구 하였다. H. Odeberg, *Trito-Isaiah (Isaiah 56-66): A Literary and Linguistic Analysis* (Uppsala: Lindequistska Bokhandeln, 1931), 250-60.

을 부여한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한다.

II.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공의

이 부분에서 논자는 먼저 구약성경과 이사야서에 나타난 공의의 일반적 의미를 살핀 후, 그것을 바탕으로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공의의 의미론적 뉘앙스를 살피도록 하겠다.

1. 구약 성경과 이사야서의 공의

맛소라 성경에서 히브리어 *sedeq*은 523회 등장하고, 한글 성경에서 주로 ‘공의’로 번역된다. 일반적으로, 공의는 “옳음(what is right), 올바름(righteousness), 그리고 진실된 것(what is true)”을 내포한다.⁴ 그러나 현대어보다 그 개념이 훨씬 덜 분화된 히브리어는 한 단어가 다양하면서도 복합적인 의미와 뉘앙스를 가진 경우가 많이 있다. 벤게메렌(W. A. VanGemenen)이 편집한 『새로운 국제 구약성경 사전(*NIDOTTE*)』에서 *sedeq*은 아래와 같이 다양하고 폭넓은 의미장을 가진다: (1) 흠 없는 행동과 정직, (2) (존재의), (3) (인간 재판관의) 정의, (4)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으로서의 공의, (5) (종교적인 태도로서의) 의와 경건, (6)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대하시는) 의와 옳음, (7)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 (8) 신뢰할만한 진리, (9) 법률적 요청, (10) 사회

4. C. F. Whitley, “Deutero-Isaiah’s Interpretation of *sedeq*,” *VT* 22 (1972): 469. Whitley는 *sedeq*의 우가릿 동족어 *ša-du-uq*가 ‘옳음(right),’ ‘올바름(uprightness)’을 의미하고, 그것의 형용사형은 ‘법률적(lawful)’이고, ‘올바른 것(rightful)’을 나타낸다고 설명하였다. 반면, *sedeq*의 아람어 동족어 *sadqun*은 ‘강인함(hard),’ ‘똑바름(straight)’을 의미하고, 사람에게 사용될 때, 그것은 진리를 향하여 강인하고, 똑바르고, 선한 것을 암시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의.⁵ 그러므로 구약성경과 특히 이사야서에서 문맥과 정황에 따라 공의의 다양한 의미와 뉘앙스를 적절하게 파악하는 것은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성경에서 공의는 온 만물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시 72:1-4; 89:14)를 내포할 뿐 아니라, 언약 백성이 행해야 할 의로운 삶(사 1:21-31; 5:7; 암 5:24)을 묘사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주제 중 하나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공의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성격을 규명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라 할 수 있다.⁶

이사야서에서 공의는 신학적으로나 해석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 이사야서에서 공의는 총 75회 등장하고,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 1-39장에서 25회, 40-55장에서 27회, 그리고 56-66장에서 23회 골고루 분포되어 나타난다.⁷ 학자들은 공의가 이사야서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론적 뉘앙스, 즉 공의의 하부 의미장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렌트로프(Rolf Rendtorff)에 의하면, 이사야 1-39장에서 공의는 항상 정의와 함께 등장하여, 언약 백성의 (불의한) “윤리 도덕적 삶의 상태”를 내포하는 반면, 이사야 40-55장에 공의는 항

5. D. J. Reimer, “*sedeq*,” *NIDOTTE*, 4:744-69; B. Johnson은 *sedeq*을 (1) 법률적 의미에서의 공정함, 옳음, (2) 하나님의 구원, (3) 영혼의 건강, (4) 관계에 대한 충성, (5)하나님의 의로움, (6) 긍정적이고, 구원을 이루는 활동, (7) 선물, 안녕, (8) 선을 행하는 능력, (9) 관계속에 파생되는 기대와 기준을 충족함, (10) 질서. “*sedeq*,” *TDOT*, 12:239-264. 사실상, 구약성경에서 *sedeq*은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번역이 가능하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논자는 *sedeq*을 그것의 가장 주된 의미이자 개념인 “공의”로 번역하고, 그것의 다양한 의미들(conception)과 뉘앙스들(nuance)을 살피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겠다. *sedeq*의 개념과 역할을 더욱 살피고자 한다면, 아래의 연구들을 참조하라. 현창학, “구약의 의의 의미 연구,” 『신학정론』, 33 (2015): 66; 이희성, “공의로우신 하나님 설교하기,” 『헤르메니아 투데이』, 54 (2012): 104; *sedeq*(공의)와 함께 자주 사용되는 *mišpāṭ*(정의)는 구약성경에 425회 등장하고, 다음과 같은 의미들을 내포한다: (1) 중재를 통한 결정, 법률적 결정, (2) 법률소송, (3) 법률적 요청, (4) 순응 일치, (5) 사회정의, (6) 신적인 명령(율법). *mišpāṭ*(정의)에 관하여는,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라. P. Enns, “*mišpāṭ*,” *NIDOTTE*, 2:1142-4.

6. 현창학, “구약의 의의 의미 연구,” 66.

7. 품사의 형태로 구분하면, 이사야서에서 *sedeq*(공의) 명사형은 60회, 형용사형은 10회, 그리고 동사형은 5회 등장한다.

상 구원과 함께 사용되어, 언약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신적 구원”의 뉘앙스를 전달한다.⁸ 비슷한 맥락에서, 오스왈트(J. Oswalt)는 언약의 관점에서 이사야서의 공의를 설명하였다. 이사야 1-3장에서 공의는 “언약의 기준에 부합된 [백성의] 삶(moral standards of the covenant)”을 내포하는 반면, 이사야 40-55장에서 공의는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covenant promise)”을 기억하며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활동(redemptive activity)을 함의한다.⁹ 이사야 56-66장은 공의의 앞선 두 가지 의미를 통합하여, 언약 백성의 부족한 윤리 도덕적 공의를 하나님께서 신적 구원의 공의로 채우고, 나아가 새 창조를 성취하는 과정을 묘사한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전체 메시지에서 공의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하부 의미장을 가진다: (1) (시온 백성의) 의로운 삶, (2) (하나님의) 구원 행위. 기존의 연구들이 이사야서의 공의에 관한 상당한 논의를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논자는 이 주제가 이사야서에서 더욱 다양한 의미론적 뉘앙스를 함의하고 있음을 이사야 61장을 중심으로 논증하고자 한다.

2.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공의의 의미론적 뉘앙스

시온의 종말론적 회복과 구원을 묘사하는 이사야 61장은 그 어떤 이사야서 본문보다 풍부하고 다양한 공의의 뉘앙스를 전달한다. 이사야 61장에서 공의는 3절, 10절, 그리고 11절에 걸쳐서 총 세 번 등장한다. 이와 같은 높은 빈도수는 이 주제의 중요성을 뚜렷이 보여 준다. 베스트만(C. Westermann)이 잘 설명하였듯이, “[이사야] 60-62장은 구원의 메시지, 즉 온전한 구원을 담지하고

8. R. Rendtorff, “Isaiah 56:1 as a Key to the Formation of the Book of Isaiah,” in *Canon and Theology* (Minneapolis: Fortress Press, 1993), 181-9.

9. J. Oswalt, “Righteousness in Isaiah: A Study of the Function of Chapter 56-66 in the Present Structure of the Book” in *Writing & Reading the Scroll of Isaiah: Studies of an Interpretive Tradition*, Vol. 1, ed. C. C. Broyles & C. A. Evans (Leiden: Brill, 1997), 177-91.

있다.”¹⁰ 이사야 60장이 시온의 외적인 회복을 묘사하는 반면, 이사야 62장은 대칭구조를 이루며 시온의 내적인 회복과 영광을 다룬다.” 이사야 60장과 62장의 대칭 구조속에서 이사야 61장은 시온의 백성들이 누릴 극적인 운명의 반전을 공의의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다. 3절에서 시온 백성들은 ‘공의의 상수리 나무들’로 묘사된 반면, 10절에서 말씀을 선포한 선포자는 공의와 구원의 옷을 입게 된다. 11절은 종말의 때에, 모든 나라 가운데 공의와 찬송이 움돋는 것을 예견하며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사야 61장에서 공의는 어떤 의미론적 뉘앙스, 즉 공의의 하부 의미장들을 내포하고 있는가? 이사야 61장의 공의는 크게 네 가지 의미론적 뉘앙스를 전달하고 있다. 첫째, 공의는 백성들의 ‘의로운 삶’을 내포한다.

1절) 주 여호와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간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2절)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10. C. Westermann, *Isaiah 40-66*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69), 296.

11. 사 60장은 “빛을 발하라(1)”는 명령과 함께 시온에 임할 ‘외적인 회복’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과거와는 달리, 여호와와 시온의 언약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을 허락하신다(10, 15). 열방의 압제자들은 몸을 굽혀 그들에게 항복할 뿐 아니라, 금, 은, 그리고 각종 물품들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시온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영화롭게 한다(7, 10, 13). 이사야 62장은 시온 백성들이 경험할 내적인 변화와 영광을 묘사한다. 시온 백성들은 여호와에게서 새 이름들-헵시바, 팔라, 거룩한 백성, 그리고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을 받으며, 새 언약이 회복을 누린다.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높이 들려 올려진 ‘아름다운 왕관’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 아니라, 열방의 부러움과 찬송의 대상이 된다(3-5, 12).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공의의 상수리나무들로 일컬음 받고,

여호와와 영광스런 나무로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논자의 사역¹²⁾)

이사야 61장 1-3절은 말씀의 선포자, 즉 종의 사역을 통해 시온 백성들이 경험할 극적인 운명의 변화와 위로를 묘사한다. 주제의 의미 구조상, 1-3절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1) 여호와와 영이 종에게 임함(1a-b: 종의 사역의 근원), (2) 종의 사역을 통한 시온 백성의 변화와 위로(1c-3d: 시온 백성의 운명의 반전), 그리고 (3) 공의의 상수리나무가 됨(3e-f: 시온 백성의 변화의 결과). 영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마음이 상한 자는 치료를, 포로 된 자는 자유를,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1-3절). 그 결과, 그들은 ‘공의의 상수리나무들’로 성장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상수리나무 이미지에 빗대어 표현된 공의는 어떤 의미론적 뉘앙스를 함의하고 있는가? 학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베스트만은 이사야 40-55장에 공의가 자주 구원과 언어관계(collocation)를 이룬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사야 61장의 공의를

12. 특별히, 3절 부분-공의의 상수리나무들, 여호와와 영광스러운 나무-에 논자의 사역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구원으로 해석하였다.¹³ 블렌킨썃(J. Blenkinsopp)은 공의를 상수리나무가 본래 가진 “본연의 자질과 형태(Eichen wie sie sein sollen)”를 의미한다고 해석한 나머지, 이 곳에서 특별한 윤리적 함의를 강조하지 않았다.¹⁴ 안타깝게도, 이들의 해석은 여호와와 그의 임재와 종의 사역을 통해 시온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이 되었다는 이사야 61장의 문맥적 정황을 면밀히 살피지 못한 듯 하다(참조. 사 60:21).

기그닐리아트(M. Gignilliat)의 연구는 3절에 등장하는 공의의 상수리나무들에 관한 심도 있는 해석을 제공한다.¹⁵ 이사야 1-39장에서 나무 이미지는 유다의 교만, 우상숭배, 그리고 배교를 나타내고, 그 결과 시온에 임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을 상징한다(1:29-31; 2:13-15; 6:13; 10:33-34; 참조 44:12-17). 물론 이 심판의 와중에도, 그루터기로부터 자란 새 가지는 성령의 단비와 함께 다시 울창한 나무로 성장한다(6:13; 44:1-5; 53:10).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사야 60-62장에 나타난 공의의 상수리나무들은 이사야 1-39장의 심판의 상황이 아니라, 종의 사역과 함께 시온 백성들이 경험할 운명의 반전과 회복을 상징적으로 묘사한다.¹⁶ 이사야 60장 21절에서 의로운 가지로 묘사된 백성들은 이제 이사야 61장 3절에서 공의의 상수리나무들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특별히 이사야 61장 3절에 등장하는 공의의 상수리나무들과 이사야 1장 29-31절의 마른 상수리나무와 의도적인 대조를 이룬다.¹⁷ 이사야 1장에 등장한 앞사귀 마른

13. Westermann, *Isaiah 40-66*, 364.

14. J. Blenkinsopp, *Isaiah 56-66*, AYB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2003), 226; P. Volz, *Jesaja II, Zweite Hälfte: Kapitel 40-66* (Leipzig: Deichert, 1932), 253.

15. M. Gignilliat, “Oaks of Righteousness for His Glory: Horticuture and Renewal in Isaiah 61. 1-4,” ZAW123 (2011): 400.

16. Gignilliat, “Oaks of Righteousness for His Glory,” 401.

17. J. N. Oswalt, *The Book of Isaiah: Chapters 40-66* (Grand Rapids: Eerdmans, 1998), 567.

상수리나무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율법을 떠나 우상 숭배와 범죄와 배교를 일삼는 패역한 시온 백성을 상징한다. 이사야 1장에서 시들은 상수리나무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심판을 피하지 못할 시온 백성을 상징한다면, 우리는 이사야 61장의 상수리나무가 죄에서 떠나 놀라운 운명의 변화와 구원을 체험한 의로운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유추할 수 있다(참고, 사 59:20절). 그들은 영의 도우심을 통해 언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의로운 백성들이다(사 56-66장). 그러므로 이사야 61장 3절의 공의는 율법을 순종하며 언약의 의무를 실천하는 시온 백성들의 의로운 삶을 함의한다.¹⁸

둘째, 공의는 시온 백성들이 누릴 영광의 뉘앙스를 함의한다. 3절의 마지막 두 연(3e-f)은 히브리 시의 평행법(parallelism)과 나무 이미지를 사용해 공의를 영광의 뉘앙스와 긴밀하게 연결시킨다.

영화로운 여호와와 나무 공의의 상수리나무들 그들은 부름 받는다
A' C' C B A

이와 같은 시적 구조는 시온 백성들이 공의의 상수리나무일(C)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무(C', A')가 될 것을 보여준다.¹⁹ 그렇다면, 회복과 변

18. Gignilliat, "Oaks of Righteousness for His Glory," 403.

19. 3f의 '여호와와 나무(מִטֶּעַ יְהוָה לְהַתְפָּאָר)의 해석과 관련하여,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 번역을 제시한다. 먼저, 많은 학자들은 히트파엘 부정사 לְהַתְפָּאָר을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재귀동사로 해석하여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여호와와 나무(the planting of the Lord, to beautify him)"로 번역한다. B. S. Childs, *Isaiah*. OTL (Philadelphia: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0), 500; Koole, *Isaiah III/Isaiah 40-48* (Kampen: KOK, 1997), 275; Blenkinsopp, *Isaiah 56-66*, 219.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이 부정사가 여호와와 나무 자체가 소유한 영광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하여, "영광을 발산하는 여호와와 나무(the plantation of Yhwh, to manifest glory)" 또는 "영광스러운 나무(glorified plantings)"로 번역한다. J. Goldingay, *Isaiah 56-66*. ICC (London: Bloomsbury T&T Clark, 2014), 306; M. Sweeney, *Isaiah 40-66* (Grand Rapids: Eerdmans, 2016), 313.

화의 결과로써, 그들은 어떤 영광의 측면을 담지 하는가? 구약성경에서 영광 (*kbd*)은 문맥에 따라 “위엄, 부귀, 또는 높은 지위”를 함의하고, “남들로부터 받는 존경, 경의, 그리고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²⁰ 원래 시온 백성들은 존경과 부러움보다, 멸시와 기피의 대상이었다(사 49:19, 21; 54:4-6; 60:10; 62:12).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극적인 변화를 겪은 후, 그들은 열방으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사 60:1, 2, 9, 19, 21).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 61장 1-3절에 묘사된 시온 백성들의 변화와 회복은 그들의 영광을 내포할 뿐 아니라, 그것은 3절에서 그 절정에 도달한다. 마빈 스위니(M. Sweeney)의 설명에 의하면, 3절에서 그들은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된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재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시키고…”(참조, 10절).²¹ 나아가 그들은 제사장으로써 황폐한 성읍과 무너진 곳을 재건하고, 예배를 섬기게 된다(4-6절). 의미심장하게, 구약성경에서 제사장의 옷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한 거룩한 신분과 영광을 상징한다(출 28: 2, 40). 과거에 시온 백성을 억압하였던 외인들은 그들의 가축과 포도원을 돌보는 신세가 되지만(5절), 이제 그들은 제사장으로써 영광스런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6절). 시온 백성들과 이방인들의 운명이 역전된 것이다. 이사야 62장은 공의와 영광의 의미론적 연관성을 더욱 뚜렷이 보여준다. 이사야 61장에서 완성된 시온 백성들의 구원과 회복을 바탕으로, 이사야 62장 3절에서 시온성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왕관이 되어 열방 가운데 그 영광을 과시한다. 그리고 이사야 62장 2절은 열방 가운데 성취될 시온의 영광을 그들의 공의로 기술한다(62:2; 참조 58:8):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못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여기

20. C. J. Collins, “*כבוד*,” *NIDOTTE*, 2:577-87.

21. M. A Sweeney, *Isaiah 40-66*, 318. 또한 동일한 책 322, 326-7을 참조하라.

서 우리는 공의란 하나님의 의로운 일하심과 통치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언약 백성가운데 성취 된 결과들, 즉 영광의 측면도 내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사야 61장 3절의 공의는 시온 백성들이 누릴 영광을 아울러 내포한다.

셋째, 공의는 시온 백성들이 경험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와 구원의 뉘앙스를 함의한다. 이사야 61장 10-11절은 종의 감사가 지배적인 종말론적 찬양시편(eschatological psalms of praise)에 속한다.²² 말씀을 선포한 종(1-3절)은 이사야 61장을 결론지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격의 찬양을 드리고 있다. 10절에서 그때 그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공의의 겹옷과 구원의 옷을 입게 되는데, 이곳에서 공의는 구원의 뉘앙스를 함의한다.

10절)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겹옷을 내게 더하심이라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우리는 두 가지 정교한 시적 기법-평행법(parallelsim)과 의복 이미지-을 통해 공의와 구원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된다. 10c-d는 ABB'A'의 평행구를 통해 종의 공의가 그의 구원임을 잘 보여준다.

22. Blenkinsopp, *Isaiah 56-66*, 230; Goldingay, *Isaiah 56-66*, 325.

그가 나를 덮었다 공의의 겹옷을 구원의 옷을 그가 내게 입혔다

A'

B'

B

A

또한 이 종의 공의와 구원은 둘 다 옷의 이미지(B, B')를 통해 묘사된다. 현대 사회도 그렇지만, 고대 사회에서 의복은 특히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위치”를 상징한다.²³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종에게 공의와 구원의 옷을 입히신 것은 이제 그에게서 신적인 공의와 구원이 성취되었음을 내포한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종이 경험할 공의와 구원은 어떤 신학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공의와 구원의 신학적 관계를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근접 문맥을 통해, 종이 부여받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공)의로운 통치에서 기인한다. 이사야 61장 8절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시행하시며 백성 가운데 만연하였던 불의와 강탈을 심판하신다. 이 구절은 불의한 방법으로 백성들을 희생하고 자신들을 부요케 한 악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을 묘사한다.²⁴ 이사야서의 전체 맥락을 고려할 때, 이것은 이사야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 시온을 청결케 하시겠다는 심판신탁의 성취이다(참고. 사 10:22; 34:5). 이사야 59장 15-21절에서 하나님은 공의의 갑옷, 구원의 투구, 열심의 겹옷, 그리고 보복의 속옷을 입으시고 시온 공동체에서 악인과 악을 심판하실 것을 약속하였다. 이사야 61장 8절에서 이제 하나님은 용사로 임하셔서, 그 악인들을 보응하는 반면 의인들을 신원하신다. 아이히로트(W. Eichrodt)는 하나님께서 악과 악인을 심판하고 다스리시는 공의를 ‘심판적 공의(punitive righteousness)’라고 칭하였다.²⁵ 이것은 또한 시온과 온

23. R. L. Alden, “*beget*,” *NIDOTTE* 1:955.

24. Goldingay, *Isaiah* 56-66, 314.

25. W. Eichrodt,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vol I. trans. J. A. Baker (Philadelphia: The

땅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함의한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악과 악인들을 심판하고, 공의를 굳건히 세우시는 것은 의인들의 구원을 함의한다.

다음으로, 광의의 문맥을 통해, 이 종이 구원을 부여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하는 공의(saving righteousness)에서 기인한다. 이사야 40-55장에서 공의는 구원과 자주 연어 관계(collocation)를 형성하여, 하나님께서 시온 백성을 위해 성취하실 구원을 내포한다. 하나님은 불의한 시온을 향해 영원히 진노하지 않으시고, 언약 관계 안에 내포된 변함없는 인자함(*hesed*)을 바탕으로 그들을 향한 옳은 일, 즉 공의를 성취하신다. 그 옳은 일이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의 구원이다! 아이히로트는 이와 같은 공의를 하나님의 ‘구원하는 공의(saving righteousness)’라고 칭하였다.²⁶ 이사야 40-55장에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공의는 메시아 종의 대속 고난과 죽음을 통해 온전히 성취된다. 그리고, 그 결과로써, 백성들은 의롭게 되어 구원을 경험한다(사 48:16; 53장). 이사야서 40-66장의 거대 맥락에 의하면, 이사야 61장에서 공의와 구원의 옷을 입은 종은 이사야 53장에 등장하는 메시아 종의 후손 중 한명일 뿐 아니라, 그가 이미 성취한 구원하는 공의의 혜택을 누리는 자이다.²⁷ 그러므로 이사야 61장 10절에서 종이 부여받은 공의는 그와 시온 백성들의 함께 누릴 구원을 내포한다.

Westminster Press, 1961), 249.

26. Eichrodt, *Theology of the Old Testament*, 248.

27. 기그닐리아트는 시온 백성들이 공의를 부여받은 것은 사 53장의 종이 성취한 공의와 구원을 선물로 부여받은 것이고, 사 61장의 종은 시온 백성들의 대표로써 공의와 구원을 부여 받았다.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라. M. Gignilliat, “Oaks of Righteousness,” 403; 사 61장에 나타난 종이 사 53장에 등장하는 종의 후손일 뿐 아니라 이사야 56-66장의 시온 공동체의 대표라는 주장에 관해서는 아래의 자료를 참조하라. W. A. M. Beuken, “Servant and Herald of Good Tidings: Isaiah 61 as An Interpretation of Isaiah 40-55” in *The book of Isaiah-Le livre d'Isaïes oracles et leurs lecteurs*, ed. J. Vermeylen (Louvain : Leuven Univ Pr, 1989), 411-42.

마지막으로, 넷째, 공의는 새 창조의 뉘앙스를 내포한다. 11절에서 좋은 시야를 넓혀 하나님께서 모든 열방 가운데 움돋게 하는 공의와 찬송을 바라본다.

11절)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11절은 마치 식물이 움돋는 것과 같이 모든 나라 가운데 공의와 찬송이 솟아나는 장면을 묘사한다. 그렇다면 이 본문에서 열방 가운데 찬양과 함께 솟아나는 공의는 어떤 신학적 함의를 내포하는가? 우리가 11절에서 눈 여겨 보아야 할 부분은, 열방 가운데 솟아난 찬송이 공의와 평행 관계를 이루며 마치 식물이 땅에서 솟아나듯 움돋는다는 것이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함 같이...” 특별히, 이 구절에서 히브리어 동사 *smh*(솟아나다)는 창조의 뉘앙스를 강하게 전달한다. *smh*동사가 가진 창조의 뉘앙스는 특히 이사야 43:18-21절과 이사야 44:28-45:8절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사야 43장 18-21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 즉 포로 가운데 있는 시온 백성을 바벨론에서 새 출애굽 시키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smh*동사는 하나님의 행하실 새 일이 신비롭고 급작스런 방식으로 성취되는 모습을 기술하는데, 쿨러에 의하면, 여기서 새 일은 하나님께서 시온 백성을 위해 성취하실 “새 구원,” 즉 “새 창조”를 함의한다(참조, 사 58:8).²⁸ 나아가, 이사야

28. 쿨러는 *smh*동사는 “점진적이고, 내재적인 역사적 발전보다. 놀라운 하나님의 활동”을 의미한다; “이것은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58:8절에서 ‘창조’로 불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아래를 참조하라. J. L. Koole, *Isaiah III*, 331

44장 28-45장 8절은 이사야 43장 18-21절 주제를 더욱 발전시켜, 하나님께서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 시온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새출애굽 시키고, 구원하시는 신탁을 그린다. 의미심장하게, 이사야 45장 8절은 *smh*동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급작스럽게 성취될 것을 식물 이미지와 함께 묘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온 백성을 위해 성취하실 구원과 공의를 (새)창조와 긴밀하게 연결시키고 있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 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런 맥락에서, 이사야 61장 11절에서 온 열방 가운데 공의와 찬양이 움돋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결과이다(참조, 사 43:21).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과 공의를 바라볼 때, 열방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성취하실 새 창조를 함의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논자는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공의의 다양한 의미론적 뉘앙스들을 살펴보았다. 이사야 61장에서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의 포괄적인 방식을 암시하고, 아울러 그 의로운 통치의 결과로써 변화된 시온 백성들이 담지하게 될 의로운 삶, 영광, 구원, 그리고 새 창조를 내포한다. 다시 말해, 이사야 61장에서 공의는 다음과 같은 하부 의미들을 가진다: 의로운 통치(8,10절), 의로운 삶(3절), 영광(3절), 구원(10절), 그리고 새 창조(11절). 그 주체별로 의미장들을 구분하면, 의로운 통치는 하나님께, 의로운 삶, 영광, 그리고 구원은 시온 백성들에게, 그리고 새 창조는 시온과 열방에 속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이사야서 학자들은 이사야서에서 공의가 유다 백성의 불의함(사 1-39장)뿐 아니라,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신적 공의(사 40-55장)를 함의한다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이분법적 해석은 공의가 이사야서에서 전하는 풍부하고 다양한 의미들을 축소시키는 미숙한 해석이라 할 수 있다. 이사야 61장의 공의의 의미론적 뉘앙스를 차트로 만들면 다음과 같다.

(이사야 61장의) 공 의	뉘앙스	주체	구절
	(공)의로운 통치	하나님	10, 8
	의로운 삶	시온백성	3
	영광	시온백성	3
	구원	시온백성	10
	새 창조	시온백성 & 열방	11

표1) 이사야 61장에 나타난 공의의 의미론적 뉘앙스

III.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61장의 신학적·해석학적 역할

이상의 논의를 통해, 논자는 이사야서 61장에 나타난 공의의 의미론적 뉘앙스를 살폈다. 이제 구조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주제적·신학적인 관점에서, 이사야 61장의 공의가 이사야서의 다른 텍스트—이사야 1장 21-31절, 11장 1-5절, 그리고 45장 1-8절, 66장 10-21절—에 나타난 공의를 반영하고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사야 61장이 전체 이사야서 본문에 일관성을 더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될 것이다.

먼저, 우리는 이사야 61장이 공의의 관점에서 이사야 1장 21-31절, 11장 1-5절, 45장 1-8절을 언어적·주제적으로 회상하여 반영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이사야 61장 1-3절에서 공의의 상수리나무는 이사야 1장 21-26절에 묘사된 시온 백성들의 암울한 운명이 반전되었음을 내포한다. 이사야 1장 28-31절은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아래에 놓여 있던 시온 백성들을 이사야가 마른 상수리나무로 묘사한다. 공의와 정의의 부재, 즉 그들의 죄악과 우상숭배는 그들을 시들게 하였다. 하지만 이사야 61장에서 울창한 공의의 상수리나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일하심으로 의로운 삶을 실천하고, 나아가 열방 가운데 그들

이 누리는 구원과 영광을 자랑하는 시온 백성들을 상징한다. 둘째, 이사야 61장은 이사야 1장 27절에 강조된 이사야서의 중심주제, 즉 시온이 공의와 정의의 회복을 통해 구원받는다든 대명제가 성취되었음을 나타낸다. 이사야 1장 27절은 시온 백성들은 공의와 정의의 회복을 통해 구원받게 된다는 이사야서의 대의(代議)를 기술한다. 이사야 61장은 이 명제를 반영하면서 그들이 이제 의를 실천할 뿐 아니라 구원을 받은 새 공동체가 되었음을 옷의 이미지와 나무의 은유를 통해 제시한다.

둘째, 이사야 61장의 공의는 이사야 11장의 메시아 왕의 이상적인 통치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로 더욱 구체화 되는 신학적 경향을 보인다. 이사야 11장 1-5절에서 공의는 메시아 왕의 의로운 통치를 기술한다. 그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를 통해 의로운 통치를 수행한다. 그가 영의 신적 도움을 통해 언약 백성을 통치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모형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반면 이사야 61장 8-10절은 악인의 악행과 강탈을 처벌하고 정의를 시행하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를 기술한다(8절). 즉, 이사야 61장 8-10절은 이사야 11장에 나타난 이상적인 메시아 왕의 통치가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로 그 주제가 더욱 구체화되고, 발전된 것을 보여준다.

셋째, 이사야 61장의 공의는 이사야 45장 1-8절에 나타난 구원과 새 창조의 뉘앙스를 반영한다. 이사야 45장 1-8절은 고레스를 통해 시온을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사역과 그 결과로 시온 백성들이 누릴 구원과 새 창조를 기술한다. 반면 이사야 61장은 고레스 뿐 아니라 메시아 종(사 53)의 대속 사역의 혜택을 받은 시온 백성들이 경험할 종말론적 구원과 새 창조를 묘사한다. 두 본문-45장 8절과 61장 3절-에 나타난 성장하는 나무이미지는 백성의 회복과 새 창조를 보여주는 중요한 모티프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 성취의 범위에 있어, 이사야 61장은 45장보다 구원과 새 창조를 더욱 보편적이고 종말론적 사건

으로 묘사하고 있다. 전자(61장)에서 공의와 찬양이 모든 나라와 열방에 읊도는 반면, 후자(45장)에서 그 나라들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사야 61장은 이사야 66장 10-21절의 종말의 때에 성취될 신적 공의를 예견함으로써,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될 새 창조를 미리 바라보게 한다. 먼저, 이사야 61장은 위로, 영광, 그리고 심판의 주제를 통해 이사야 66장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구원과 공의를 경험한 시온 백성들은 운명의 변화와 함께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위로를 누리게 된다. 이와 같은 이사야 61장의 위로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풍성한 위로를 미리 예견한다(사 66:10-14). 다음으로, 공의의 관점에서, 이사야 61장에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불의와 강탈을 심판하는 장면(7-8절)은 이사야 66장 16-17절에서 하나님께서 악과 악인을 영원히 심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시는 종말론적 새 창조의 사역을 예견한다. 아울러, 이사야 61장에서 시온 백성들이 영광을 회복하고,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장차 이사야 66장 18-21절에서 이방인들이 제사장이 되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회복과 새 창조를 예견하고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공의의 다양한 의미론적 뉘앙스들을 보유한 이사야 61장이 이사야 1장, 11장, 그리고 45장을 회상하여 반영할 뿐 아니라, 이사야 66장을 미리 예견하고 있음을 살폈다. 이사야 61장이 제공하는 공의의 하부 의미장들-의로운 통치, 의로운 삶, 구원, 영광, 그리고 새 창조-은 이사야 1장, 11장, 45장, 그리고 66장의 공의와 서로 상응하며, 그것에 대한 적절한 신학적 해석과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이사야 61장에서 공의는 이사야서 주제의 거대 흐름-심판(사 1-39장), 구원(40-55장), 그리고 영광과 새 창조(56-66장)-을 모두 회상하여 반영할 뿐 아니라 장차 종말론적 시대, 즉 새 하늘과 새 땅에

서 성취될 택한 백성들의 궁극적 심판, 영광, 그리고 새 창조를 예견한다. 이와 같은 구조적·주제적 기능들은 이사야 61장이 이사야서 전체 메시지의 플롯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해석과 단서를 제공할 뿐 아니라, 그 메시지에 일관성을 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IV. 나가면서

논자는 본 논고에서 이사야서의 라이트 모티프(leitmotif) 중 하나인 공의의 의미론적 뉘앙스를 중심으로 이사야 61장이 이사야 메시지에 구조적인 통일성을 더할 뿐 아니라, 전체 플롯을 해석하는데 중요한 해석학적 단서를 제공하는 신학적 분수령을 이룬다는 점을 논하였다. 적용적인 측면에서, 이사야서에 대한 진지한 해석과 아울러, 공의의 주제는 한국 교회 공동체에 중요한 화두를 던진다. 이사야서의 공의는 이 세상에서 성도와 교회는 윤리 도덕적으로 의로운 삶을 실천함으로써, 세상가운데 공의로운 백성으로 성화될 뿐 아니라, 구원과 영광을 담지한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시사한다. 공의를 실천하며 선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에 부합하는 삶”을 함의한다.²⁹ 따라서 성도와 그들의 모임인 교회는 공의를 실천함으로써, 세상 속에 신령하고 영속적인 구원, 영광, 그리고 새 창조를 구현해가야 한다.

29. 강웅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선한 행실에 대한 조나단 에드워즈의 강조,” 『생명과 말씀』 23 (2019): 11.